

LG전자

- LG전자, 월드IT쇼(WIS) 2008 참가
- LG전자, 세계최초 블루투스 헤드셋 일체형 휴대폰 출시
- LG전자, 「글로벌 인재 경영」 중서 싹 틔운다

LG전자, 월드IT쇼(WIS) 2008 참가

- 블랙라벨 시리즈 3탄, '시크릿폰' 국내 처음으로 공개
- LCD TV '다비드/스칼렛', PDP TV '보보스', 'P300' 노트북 등 180여 종의 최신 제품 전시
- 김치호 작가 참여해 전시관을 Art Gallery형으로 꾸며

LG전자가 6월 17일부터 나흘간 COEX에서 열리는 월드IT쇼(WIS) 2008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시크릿폰' 등 최신 핸드폰 제품 40여 종을 비롯해 '다비드', '보보스' 등 LCD·PDP TV 40여 종, 노트북 'P300' 시리즈와 '스칼렛 홈씨어터' 등 디지털 미디어 제품 100여 종 등 총 180여 종의 감각적 디자인과 최첨단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초콜릿폰', '샤인 폰'의 신화를 이어갈 세번째 블랙라벨 시리즈인 '시크릿폰(Secret, 모델명 : LG-SU600, KU6000, LU6000)'을 국내시장에 처음 선보인다.

'시크릿폰'은 지난 4월 유럽시장에 출시돼 2주 만에 2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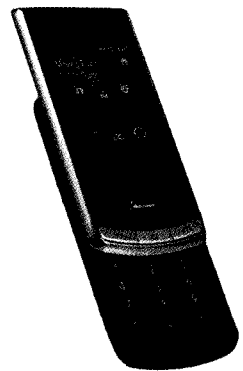
품으로 LG전자 싸이언의 하반기 최대 전략폰이다.

탄소섬유와 강화유리 등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한 첨단 신소재를 적용, 견고한 느낌의 고품격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500만 화소 카메라와 지상파 DMB를 장착했음에도 두께는 12mm에 불과해 동급 휴대폰 중에서 가장 얇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시크릿폰'에는 이 밖에도 웹브라우징 서비스(SKT, LGT 적용), XOME-i 사운드 시스템 등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특화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LG전자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스마트 타임머신, 풀 HD 영상, 120헤르쯔(Hz) 라이브스캔, 인비저블 스피커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가치를 담은 완벽한 TV로 불리는 '다비드(모델명: LG70)'를 비롯해 '스칼렛(모델명: LG60)', '보보스(모델명: PG 60)' 등 LCD·PDP TV도 전시한다.

디지털 미디어 제품으로는 XCANVAS 홈씨어터(스



칼렛/샴페인)와 XNOTE 노트북 'P300' 시리즈, '피카소' PC, PLATRON 모니터 등 100여 개의 제품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WIS 2008에서 선보일 LG전자관의 특징은 한마디로 'Art Gallery형 전시관'으로 표현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김치호 작가가 참여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Gallery와 같은 전시관으로 꾸몄다.

실사패턴이 장식된 전시 공간의 벽면 위에 세련된 디자인의 첨단제품을 전시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볼록렌즈를 통해 제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LG전자의 제품 구석구석을 확대해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LG전자의 제품이 디자인과 기능에 있어 '감출 곳 없이 완벽함'을 추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전시 디자인 컨셉트를 'Perfect Without Hide'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웹사이트(<http://wis.lge.co.kr>)도 오픈 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LG전자관에 대한 소개자료와 전시제품 정보는 물론 김치호 작가와 전시 나레이터가 출연하는 UCC 작품도 올려나 네티즌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LG전자, 세계최초 블루투스 헤드셋 일체형 휴대폰 출시

- 16일, 美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통해 '디코이(Decoy)' 출시
- 착탈식 블루투스 헤드셋을 휴대폰 뒷면에 장착
- 휴대폰과 블루투스 헤드셋이 동시에 충전돼 기존 제품의 불편함 해결
- 메뉴 부분에는 방향 이동 버튼 대신 조이스틱 적용

LG전자는 16일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

어리스(Verizon Wireless)를 통해 블루투스 헤드셋을 휴대폰에 장착한 '디코이(Decoy, 모델명:LG-VX8610)'를 출시한다.

블루투스는 휴대폰을 헤드셋,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와 무선으로 연결해 통화, 데이터 전송, 사진 인쇄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최근 휴대폰의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제품은 착탈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뒷면에 부착된 블루투스 헤드셋이 분리돼 운전이나 운동을 하거나 업무 중일 때 무선으로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휴대폰을 충전하며 블루투스 헤드셋도 동시에 충전되어, 두 개의 충전기로 휴대폰과 헤드셋을 각각 충전해야 하는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해결했다.

메뉴 부분에는 방향 이동 버튼 대신 조이스틱을 적용해 손가락을 움직여 메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슬라이드 형태로 메탈 느낌의 재질을 적용한 세련된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200만 화소 카메라, MP3 플레이어, 외장 메모리 등 풍부한 멀티미디어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디코이(Decoy)라는 애칭은 블루투스 헤드셋을 장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 특징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LG전자 MC북미사업부장 황경주(黃瓊周) 상무는 "북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디코이로 블루투스 기능에 민감한 젊은 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글로벌 인재 경영」 중서 싹 틔운다

- 中 선양법인 중국인 현지 직원 2명, 아프리카 주재원으로 파견
- 해외 진출 한국 기업으로 처음... 현지 인재 육성의 결정판
- 올 연말 까지 중남미, 러시아 등지에 5명 추가 파견 예정



LG전자의 「글로벌 인재 경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LG전자 중국 선양(沈陽)법인은 최근 중국 현지 직원 2명을 아프리카 주재원으로 파견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이번에 파견된 중국인 주재원들은 입사 5년차 직원들로 그 동안 2, 3차례씩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핵심 인재' 들이다.

LG전자의 중국인 최초 주재원인 이들은 아프리카 동, 서부 지역 브라운관 TV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년 임기로 나이지리아와 케냐에 각각 파견된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한달 동안 지역 시장 조사를 마친 상태.

브라운관 TV를 생산하는 선양법인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중

국인 주재원 5명을 추가로 중남미 및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1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자사 주재원을 파견, 주요 핵심 업무를 맡기고, 현지 직원들은 이들을 뒷받침하는 '미들맨'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지 우수 인재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뿐 아니라 동기 부여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LG전자의 사례는 '글로벌 현지 인재 육성'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남용 부회장이 최근 언급한 '국적 없는 글로벌 컴퍼니'의 밑받침이 되는 '해외 현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LG전자의 중국인 주재원 1호인 량천 사원은 "나의 역량을 믿고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한다"면서, "현지 주재원 1호라는 명성에 걸맞는 성과를 올려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06년부터 해외 현지 핵심 인재들의 역량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해 '글로벌 리더 과정'을 개설, 현지 경영자급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LG전자는 국가에 관계없이 LG의 경영이념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하고, 성과지향형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유니레버사에서 약 25년간 글로벌 인사관리를 맡아온 레지날드 불(Reginald J. Bull) 부사장을 CHO(최고 인사 책임자)로 영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